

중국 공산당의 사교특성은 무엇인가? (런재 1)

물론 공산당은 자신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실 그것은 종교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아래 표1 참조) 설립된 초기부터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천하에서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마르크스를 정신적인 신(神)으로 여기고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로 당원들을 유도하여 평생 이것을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



표 1. 중국 공산당의 종교색채

	종교의 기본형식	중국 공산당의 형식
1	교당(教堂), 강단(講壇)	각급 당위원회, 강단은 공산당 회의부터 당이 통제하는 전체 언론매체
2	교의(敎義)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이론, 장쩌민의 '3개대표', 당장
3	입교의식	선서, 공산당에 영원한 충성 맹세
4	신앙은 전일(專一)해야 한다.	오직 공산당만 믿는다.
5	성직자	당위원회 서기 및 각급 당무위원
6	신에 대한 숭배	모든 신을 말살하고 공산주의를 믿음
7	죽으면 '하늘에 오르거나, 지옥에 떨어진다.'	죽으면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고 한다.
8	경서(經書)	공산당 지도자들의 이론저작
9	포교 및 전도(傳道)	각종 회의와 지도자의 담화
10	경문을 외거나 가부좌	정치학습, 당원의 조직생활
11	찬송가, 찬불가	공산당 찬양 노래
12	기부	당비를 바치고 국가예산을 끌어온다
13	징계(懲戒)	당의 기율로 '쌍규', '출당' 심지어 사형까지 하며 연좌제를 실시

공산당은 정교(正敎)와 명확한 구별이 있다. 정통적인 종교는 모두 신을 신앙하고 선(善)을 믿

는 것으로, 사람들의 도덕을 승화시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산당은 모든 신을 부정하며 전통적인 도덕을 반대한다. 공산당의 행위를 보면 그것이 확실히 사교임이 입증된다. 계급투쟁,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교리(敎理)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학살을 통해 이른바 공산혁명을 가져왔다. 공산당 정권의 적색(赤色) 테러는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 세계 절반에 재앙을 초래하였으며 수천만에서 일억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인간 지옥을 만든 공산주의 신앙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대사교(大邪教)이다.



(1) 교의(敎義)를 날조하고 견해가 다르면 제거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교의로 받들면서 '파멸하지 않는 불멸의 진리'라고 표방한다. 공산당의 교의에는 인자하고 남을 용서하는 내용이 결핍되어 있으며 오만방자함으로 충만되어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생산과 과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로,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 이런 이단사설(邪說)이 불행하게도 국제 공산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피해는 백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완전 착오적인 것임이 입증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레닌 이후 공산당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공산 사교의 교의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였다.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으로부터 모택동의 프롤레타리아독재하의 연속혁명론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 장쩌민의 '3개대표이론'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의 역사는 이런 사악한 이론들로 충만되었다. ("9평"에서 발췌)



지난 8월24일 오후, 신당인텔레비전방송국에서 주체한 제2차“전세계중국무용콩쿨”결승경기가 미국 뉴욕에서 막을 내렸다. 표창식에서 남녀소년조와 남녀청년조 1등상, 2등상, 3등상, 연출상을 각기 수여했다. 결승경기에 참가한 30명 선수들중 대부분은 미국비천음악학교의 파룬궁학원들이었다. 평의위원이며 자심고전무용전문가인 곽수녀사는 《이번 콩쿨에서 성공적으로 전세계에 순정한 중국무용을 펼쳐보였다.》라고 말했다.



성대한 표창식



여자 소년조 1등상을 수여 받은 채교초가 연출한 “비천(飞天)”



남자소년조 1 등상을 수여 받은 리박건이 연출한 만강홍(满江红)



여자청년조 2 등상을 수여받은 소선자가 연출한 “정화어(净花语)”



남자청년조 1 등상을 수여받은 오순천이 연출한 “집필서회(执笔书怀)”



사천성 모 촌에 넓은 강이 가로 있어 량안 촌민들의 래왕에 불편했다. 촌 간부들이 촌민을 조직하여 다리를 놓으려고 집집마다 1명 의무일군을 내놓으라고 동원했으나 촌민들은 여러가지 구실을 대어 할수없이 뒤로 미루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파룬궁학원이 다리를 놓는데 수요되는 돌재료들을 모아서 조금씩 강변에 실어다 놓고나서 이 촌의 파룬궁학원들을 불러와서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이 마을 촌민들은 파룬궁학원들의 고상한 정신에 감동되어 너도나도 자진해 나섰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일심협력하에 재빨리 다리를 놓게 되었다. 촌민들은 이 다리를 “파룬궁다리”라고 이름지었다. 한 촌간부는 《내가 이 다리를 놓으려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지만 끝내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마을의 파룬궁학원들이 소리없이 다리를 놓았습니다.》라고 감격하여 말했다.



실종된 리문지

왕청현 파룬궁학원 리문지(李文智)는 2007년 4월 18일에 왕청현동광진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된 후 1년 반 로동교양 판결을 받고 9대음마하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았다. 금년 8월말에 리문지의 부모들은 동광진 파출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리문지가 집으로 돌아왔는가고 물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9대로교소에서 지난 8월 8일에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리문지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다. 리문지를 석방할 때 집 사람 혹은 당지 경찰기관에서 집적마중가서 인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누구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는가? 왜 석방한지 10여 일이 지난 후에야 리문지가 집에 돌아왔는가고 물어보는가? 이 속에 무슨 공공이가 있는가? 리문지의 실종에 대해 누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가?

9대음마하로교소와 동광진파출소에서는 속한 기일 내에 리문지의 실종진상을 밝히고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